“지역발전 · 정치 혁신 위해 열과 성 다하겠다”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 - ⑤익산 을 **조 배 숙**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당 조배숙 당선인은 이제 도내 여성의원들 중 최초로 ‘4선’이라는 타이틀을 달게됐다.

그녀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경험을 지우고 4년 후 ‘뚝심’으로 당당히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다.

도내 여성 의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더 많은 여성들이 잠재능력 발휘하도록 노력 여성들의 정계진출 문턱 없애는데도 힘 쓸것”

시급한 지역 현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시장 중심지 육성 호남권 대표 역사문화 관광도시 발전시킬 것”

익산을 선거구는 처음부터 국민의당 조배숙 당선인이 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도 조 당선인이 단연 강세를 보여 일찌감치 낙승이 예상됐다.

특히 한병도 후보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익산 갑 경선에서 탈락, 선거구를 옮기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었다.

한 후보는 TV토론회 등을 통해 역전을 노렸지만 지난 4년동안 탄탄한 지지세력을 확보한 조 당선인을 넘기가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전북출신 여성 의원중 4선의원은 조 당선인이 처음이다.

조 당선인은 익산을 선거구를 ‘여성 의원 텃밭’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기여했다.

익산을 지역은 20여년 가까이 여성의원을 배출했다.

유권자들 역시 해당 선거구를 여성지역이라고 대부분 인식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전, 당선 확률도 높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

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당 바람뿐만 아니라 조 당선인이 금배지를 거머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로 3선 출신 국정 운영 및 선거경험과 지난 19대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절실함을 꼽고 있다.

조 당선인은 19대 총선 당시 ‘여성 신인 가점’ 등의 요인으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경험을 지워버리는 대신 이를 ‘뚝심’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승리했다.

조 당선인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의 뜻이 이번 승리를 만든 견인차라고 생각한다”며 “익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전북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4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다. 재입성 소감은?

4선의 영예를 안겨주신 익산시민들께 감사드린다. 4년 전 낙선의 아픔을 겪었다. 제겐 인고의 세월이면서도 성찰의 기회이기도 했다. 익산을 지키면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저의 진심을 다 보여드렸고 시민여러분께서 저의 진정성을 알아봐주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익산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해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익산발전과 정치혁신을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

▲전북출신 여성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됐다.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약자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하며 법과 제도를 손질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용이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최근 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20대 국회는 여성의원이 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데 보이지 않는 문턱을 없애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익산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양분하게 됐다. 관계설정은 어떻게?

지역발전에 소속 정당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춘석 의원과 정헌율 시장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익산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

▲당내 전정희 의원과는 껄끄럽진 않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함께 힘을 합해 익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4선 의원으로서 지역내 역할 어떻게?

무엇보다 익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경제 ·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전북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도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데 정치적 역량을 쏟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야권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되살리는 데 헌신하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

▲유성엽 의원의 중앙당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도 중앙당 당직을 생각하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장교들의 꿈은 모두 4성 장군이 목표일 것이다. 저의 정치적 포부 또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다.

▲여성 국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아직은 성급한 얘기다. 20대 국회는 여성의원이 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성 의원들의 국회 내 입지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시급한 익산시 현안은 무엇인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지로 키워나가야 한다. 현재 부지 조성 단계(30% 공정률)에 있으며 식품 관련 기업유치에 성패가 달려있다. 전북 정치권 및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 최근 들어 관광객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라의 왕도 경주가 영남권의 대표적 역사문화 관광도시인 것처럼 백제의 왕도였던 익산을 호남권의 대표적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익산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당 지도부와 또 전북지역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익산과 전북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광영 기자

벌써부터 내부 이견 ‘솔솔’… 국민의당 이념논쟁 ‘현실화’

안철수 · 천정배 등 당내 핵심인물들간 서로 다른 목소리

20대 총선에서 적잖은 성과를 올린 국민의당이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벌써부터 내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선거기간에서는 호남을 중심으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정동영 전현직 의원 등이 역할을 분담해 호흡을 맞췄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 지도급 인사들 사이에서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창당 초기부터 내부 구성원의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같은 우려가 선거 이후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중도를 지향하는 안 대표와 개혁색채가 두드러진 천 대표와의 의견 차이다. 천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의회권력을 발휘해 구(舊)정권 8년의 적폐를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선전포고를 했다. 천 대표는 “구 정권의 적폐와 관련된 사안은 셀 수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복지후퇴, 테러방지법, 담배세 등 각종 서민증세, 누리과정 예산문제, 언론탄압, 국정 역사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인사 예산 등의 극심한 지역차별 등 수많은 현안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 측이 즉각 제동을 걸었다. 청문회와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보수정권과 각을 세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좌클릭한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안 대표측은 “(천 대표의 의견은)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일하는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당의 중심 전략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권과 날 선 대립각을 세우는 당의 콘셉트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안 대표는 19일 부산을 방문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민생을 최고 의제로 두고 일하겠다”고 강조, 천 대표와 거리를 뒀다. 양측은 또 국회의장 선출 문제를 놓고도 온도차를 나타냈다. 안 대표는 1당인 더민주 측의 손을 들어주는 스탠스를 취한 반면, 천 대표는 아직 논의해볼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 대표와 함께 당내 대표적인 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당선자도 벌써부터 개혁 입법 도입과 야권 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전 장관은 18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국정교과서 문제 등을 비롯해 개혁 입법에 대해 더민주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며 야권통합론에 힘을 실었다.

안 대표는 야권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승용 의원 등도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에서 “국민의당은 비록 38석의 제3당이지만 20대 국회 중심추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독자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천 대표나 박지원 의원 역시 당내 야권 통합론자로 분류된다.

여기에 당내 보수론자로 꼽히는 이상돈 비례대표 당선자는 대놓고 정 당선자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선거전 이 당선자는 아예 “정동영 전 장관이 입당할 경우 국민의당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두고 이 당선자는 폐쇄 쪽에, 정 당선자는 폐쇄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최근 새누리당과도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당내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당내에서 적잖은 이견이 새어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예견됐던 국민의당 내부의 이념 다툼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행정위, 빅데이터 이해 제고 교육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빈)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해 이전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 등이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빅데이터 분석과 적극적 활용을 통해 도정과 도의회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 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의 선진사례는 탈세방지시스템을 통한 국가재정강화, 범죄발생지역 및 시간을 예측, 범죄사전예방 등이 있으며 국내 공공부문사례로는 심야시간대 유동인구를 반영한 노선수립, 원인병원체 등 분석을 통한 식중독 예측 등이 있다.

양성빈 위원장(장수)은 “정보화 시대인 현재,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데이터는 곧 미래 경쟁력이다”면서 “데이터가 넘치지만 잘 꿰어야 보배이듯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검찰, 국민의당 박준영 공천헌금 받은 혐의로 조사중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 · 무안 · 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5)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당선인이 국민의 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씨는 전남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형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건넨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초 사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김씨가 건넨 금품의 대가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신민당 공천 청탁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주 기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끝났다”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김무성 대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김무성 대망론’ 종언을 단언했다.

김 전 부소장은 19일 저녁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서 김무성 전 대표는 끝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소장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 후보가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당권을 차지하고 갈 인물이라든가 대선에 등장할 인물이라든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당장 총선 책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당 대표도 그렇고, 심지어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환복위, 진안 생태관광지 등서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20~21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 생태관광지, 임실 산불헬기계류장 등 산림휴양 · 문화시설 및 산불감시현장을 대상으로 현지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 · 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 중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 대상지를 둘러본 뒤 “각 시 · 군이 가진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지약물 산업화 및 임업인 소득 확대 등을 위해 조성된 산약초타운을 견학하고 산림휴양?문화시설 분야 개선방안 논의 등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강영수 위원장은 임차헬기 계류장 현장에서“최근 이상고온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